



제22회 호남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국내·외 마라토너 1000여명과 문병익 전남일보 이사, 양대동 광주시육상연맹 상임부회장 등이 20일 광주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광장에서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하프코스에서 출전한 남녀 마라토너가 하트로 포즈를 취하며 달리고 있다.



컬러 스타킹으로 단장한 한 여성 마라토너가 골인하며 기뻐하고 있다.



하프코스에서 출전한 한 마라토너가 고프로로 자신과 영산강변을 촬영하며 달리고 있다.



하프코스에서 출전한 한 마라토너가 골인 후 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출발에 앞서 한 마라토너가 다리에 테이핑을 하고 있다.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완주 후 동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성 마라토너들이 출발에 앞서 로제의 '아파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몸을 풀고 있다.

화보=김양배 기자



마라톤 참가자들이 완주 기념 기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